

조선시대를 이끈 지성의 한 줄기를 찾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펴낸 이수건 교수

조선시대 정치지배구조와 사회변동 연구에 주력해온 이수건(李樹健, 61, 영남대 국사학과)교수가 최근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일조각)를 펴냈다. 16세기에서 18세기까지 퇴계, 남명학파를 중심으로 한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다각적으로 고찰한 이 책은 15세기 후반 김종직을 중심으로 한 영남사림파의 형성문제를 다룬 《영남사림파의 형성》(영남대출판부, 1979)의 후속편으로 볼 수 있다.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정치세력인 사림세력 중 기호학과와 크게 대별되는 영남학파의 성격과 의의를 규명하려는 이교수의 그간의 연구성과가 집대성된 이 책은 <영남학과 연구서설> <영남학과 형성의 사회, 경제적 기반> <영남학파의 형성과 발전> <영남학파의 정리, 사회적 기능> 등 4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 학계에서 기왕에 진행된 이 분야 연구들이 대부분 유학사나 학설사를 중심으로 하거나, 개별적인 학자의 사상이나 학문세계를 밝히는 데 치중했던 데 비해 이 책은 정치·사회의 시각에서 사림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그들의 정치·사회적 활동과 기능에 역점을 두고 고찰했다는 데서 우선 주목을 끈다.

영남학과 통해 조선시대 구조와 변동 살펴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했던 조선시대는 16세기에 접어들면 사림세력이 정계를 장악하게 되고, 아울러 각 정파의 분열과 동시에 인맥, 지연 및 학통이나 학설상으로 점차 유파가 생기면서 동서분당과 함께 영남학과와 기호학과로 대별되어 갑니다. 따라서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피는 일은 조선시대 사림사회의 형성과 정치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한 방법이 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조선시대 정치·사회적 구조와 변동을 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4년 출간된 《한국중세사학회연구》(일조각)의 제 1편 <고려시대 토성 연구>를 통해 이미 우리 역사를 규명하는 한 자료로서 토성연구가 지니는 중요성을 학계에 새삼 인식시키기도 했던 이교수는, 이 책에서도 현장답사를 통한 문헌 및 사료의 수집과 그것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흘린 땀의 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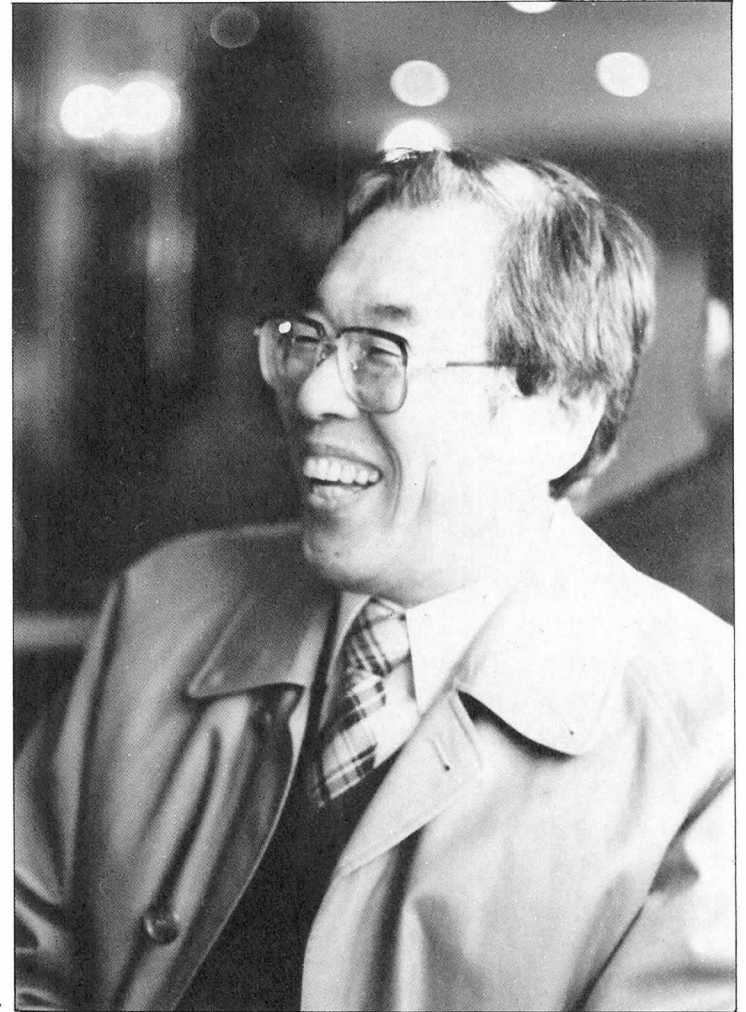
적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영남학파의 주요 가문의 거주지를 지역별로 구분해 그 특징을 분석하는가 하면 각 가문이 소장한 고문서를 중심으로 각 가문의 가계와 통혼관계, 재산소유형태와 분재(分財)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그것이다.

이교수에 따르면 영남지방은 일찍부터 선진농법이 발전한데다가 자연재해나 외침의 피해를 가장 적게 받았기 때문에 타도로부터 유입해오는 피난민이나 유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자연환경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여말선초의 재지사족들의 향촌개발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는 것. 이를 통해 이들은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아울러 정치·사회적 세력의 성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 후기 경상도 지방의 대표적인 명문들의 거주지를 일별해보면 미개발지역이던 읍치의 외곽지역이거나 부곡·소와 같은 소멸단계의 폐허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말까지는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던 이들 지역에 재지사족과 기성관인들이 이주, 정착하면서 개발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한편, 이교수는 이 책에서 이들 재지사족들의 재산소유형태는 전민(토지와 노비)을 중심으로 통혼권내에 분포되어 있음을 밝힌다. 이는 이들의 재산증식방법이 주로 부모나 처(妻)변에서 전래되는 상속이나 증여에 집중돼 있었던 데 연유한다. 상속이 있어 남녀 차별이 없고, 결혼 후 처가에 들어가서 살거나 처가 근처에 사는 ‘술서혼제(率蹻婚制)’와 자녀균분제(子女均分制)가 일반화되었던 17세기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낙향은 처향이나 외향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재지사족의 세력확장과 재산증식이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특히 퇴계의 경제적 기반이 된 가산의 유래와 규모 및 그 치산이재(治產理財)를 퇴계에 의해 정리된 그의 내외조상의 <장갈문(狀隔文)>과 가서(家書) 및 <손자녀분재기(孫子女分財記)>와 같은 윤색되지 않고 구체적인 면모를 지닌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밝힌 점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퇴계의 또다른 일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기까지 하다.

이를 통해 이교수는 퇴계가 학문이나 교



이수건 교수.

육에 전념한 만큼 치산이재에도 결코 소홀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의 학문의 높은 경지 역시 그가 이룩한 일정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가능했음을 역설한다.

“조선시대 유학사나 학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자칫 고전에 매몰돼 현실과는 유리된 채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이 유교문화나 양반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회고에 빠져 있거나, 당시 학자들을 신격화하거나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역사상의 어떠한 인물도 신격화하거나 성역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는 이교수는 우리가 흔히 숭앙하는 조선시대 사림의 지조와 절개는 주자학적인 의리와 명분에 영향 받은 바도 크지만, 무엇보다 이들의 공고한 ‘지주적(地主的)’ 성격 위에서 재조(在朝), 재야(在野)를 막론하고 일정 수준의 노비와 토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

리한다. ‘항산(恒產)’의 기반 위에 ‘항심(恒心)’이 유지된다는 말이다.

퇴계학과와 남명학파의 비교분석

《영남학파의 형성과 발전》을 다룬 3장에서 이교수는 영남학파의 학문적 전통과 연원, 각 학파간의 학풍의 차이와 인맥을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영남학파는 15세기 후반 김종직을 영수로 한 경상도 출신의 신진사류인 ‘영남사림’과는 맥을 잇고 있되 일정한 차별성을 지닌다.

영남사림이 훈구파의 집권하에 성리학의 수용·정착에 기여한 세력이라면 ‘영남학파’는 성리학을 하나의 철학사상, 실천윤리로 정립시키는 데 기여한 세력으로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퇴계학풍으로 통합되면서 지역적 범위로서는 8도 체제하의 경상도를, 시기상으로는 16세기 이래 조선 후기를, 정파상으로는 동인 내지 남인의 입장을 포괄하

는 학파이자 정파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 따라서 영남학파는 지역상으로는 영남, 학문적으로는 퇴계라는 학파로 단순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 내부를 살펴보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와 변천상을 가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교수는 우선, 경상 좌도와 우도를 대표하여 영남학파의 2대 산맥인 퇴계학과와 남명학과를 출신지역, 가계와 학통, 성품과 위학(爲學) 태도, 현실 대응 자세 및 문인(門人)들의 세력 소장(消長)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있다. 퇴계가 대소과거를 거쳐 고관요직을 두루 역임한 끝에 명종말~선조초에는 정계와 학계에 주도권을 장악한 신진사류의 영수로서 조야의 숭앙을 환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남명은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고 산림처사로 일생을 마쳤으며 지행과 연동이 일치하지 않은 당시의 학자들을 '도명(盜名), 사세(斯世)' 하는 자라고 매도하는 등 현실비판적인 인식과 실천을 중시했던 점은 두 학파의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학에 남다른 조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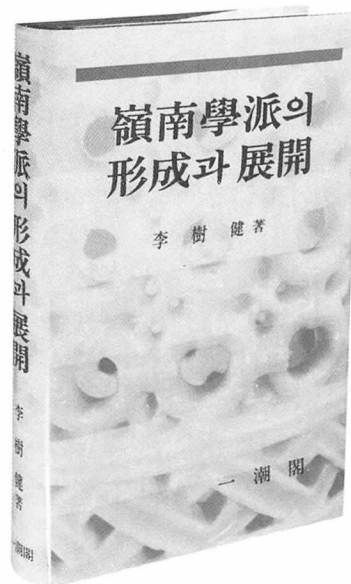
한편, 영남의 고전적(古典籍) 일체를 조사하여 《경북지방고문서집성》(영남지방고문서집성)(영남대출판부, 1981)을 펴낸 바 있는 이교수는 이들 문서를 통해 기호학과 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경남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현실정치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시기의 영남학파의 학문적 경향이

조선시대의 핵심적인 정치세력인 사림세력 중 기호학과와 크게 대별되는 영남학파의 성격과 의의를 규명한 이 저서는, 기왕에 진행된 이 분야 연구들이 개별학자의 사상과 학문세계를 밝히는 데 치중했던 데 비해 사림세력의 사회경제적 기반과 정치활동에 역점을 두고 고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나 저술의 내용이 시문과 경제학, 성리학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현실과 크게 유리되지 않았던 반면, 17세기 말 이래 기호학과인 서인의 집권으로 중앙정권에서 배제되면서 주자학과 퇴계학 일변도로 관념적으로 치달았고 지역간의 학문교류도 거의 차단된 현상을 보였다고 지적한다. 이는 당시 기호학과와 근기(近畿)남인에서는 실학적 저술이 활발했던 것과 크게 대별된다.

“퇴계와 남명을 포함한 영남학파의 학문적 저술과 문학작품을 살펴면서 무엇보다 그들이 모화사상에 매몰되어 자국의 역사와 문화, 일반 민중에 대한 관심이 희박하다는 점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교수는 학파이자 곧 정파였던 영남학파



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면서 현재 우리 상황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추상적인 의리나 명분을 앞세운 과거의 학자들도 그 속을 파들어가보면 실질적인 이해 관계에 급급하고 있었고, 자국의 상황에 깊이 천착하기보다는 외국 학문의 수용과 모방에 급급했던 것은 마치 근대화 이후 서구의 학문이론 수입에 열을 올렸던 우리 학계의 한 단면을 연상시킨다는 것이다.

그는 아울러 영남학파에 대한 자신의 연구가 자칫 “지역차별의 역사적 연원을 살핀다”는 식의 현학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쯤으로 비쳐지는 것을 경계한다. 그는 자신의 연구목적은 오히려 과거의 학파와 정파간의 활발한 논쟁과 상호교류를 통해 우리 사회

의 학맥이나 인맥, 자연에 의존하는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열쇠를 찾는 데 있었고 실제로 조선시대의 각 학파간의 활발한 상호교류나 밀접한 영향관계, 논쟁 문화는 최근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차별이나 지방할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한다.

한문학이나 고문서 이해에 남다른 조예를 지닌 이교수는 전통적인 유교관습에 젖은 동족부락의 모습을 지닌 마을에서 태어나 한문을 배우는 학생 수십명이 드나들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문을 익혔고, 조부로부터 유가의 예절을 비롯하여 성과 본관, 가문과 조상의 유래 등 보학(譜學)에 관한 상식을 조석으로 듣고 자랐다고 한다.

그가 학문이나 실생활에 있어서 ‘지행합일’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리고 역사 바로잡기의 중요한 사료로 ‘토성’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다.

주변에 관련자료가 많아 자료 입수가 비교적 용이하고 그 세력이나 영향력이 광범위했다는 점 때문에 영남학파를 연구 주제로 택한 그는, 자신의 연구가 다른 학파의 연구에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런 형태의 각 학파별 연구가 활성화한다면 조선시대 성리학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가능하지 않을까는 바람 때문이다.

—박남정 기자

영남학 일본 남자가 쓴
발상 위의 한일 전쟁

알미운 아내는 한국인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긴다?

한국 여자와 결혼한 일본 남자 히라이 히사시 씨. TV특파원으로 서울에 머무는 동안 사귀게 된, 툭툭 튀는 한국 여자와, 한 쌍을 이루기까지 치러 낸 수많은 사연들을 엮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달라야만 하는 걸까요? 아내는 성격 칼칼하고 때로는 경우도 없이 따지기 좋아하는 한국사람, 남편은 천성이 확실한 게 없는 모호한 일본 사람인 탓입니다. 언어 한 토막, 갈치 한 토막이 따로 구워 올려지는 이들의 밥상, 생선 취향에도 민족성이 반영되는 것일까요? 상식이 다른 두나라, 선명하게 대립되는 두개의 문화를 끌어 안고 별이는 해프닝과 그 대립을 하나의 '재미'로 받아들이기까지 3년 여의 시간을 실감나게 담은 한술밥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얻은 깨달음으로 "이제는 서로 다른 것이 즐겁다"는 두 사람. 민족이니 남녀니 하는 문제보다 더 큰 세계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알미운 한국인!'을 주장하고 나선 애처가 일본 남편이 농도 짙게 한국 여자를 꼬집습니다. 현대판 한일 전쟁에서는 한국이 이길까요? 히라이 히사시 지음 / 정가: 6,000원